

# 정보화시대에 따른 육군 보유 훈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3 야전군

신광식\* · 김행조\*\*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age, Army reserve training center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 Third Field Army

Kwang-Shig Shin\* · Haeng-Jo Kim\*\*

## 요 약

본 연구는 국방2020계획으로 군부대 축소에 따른 첨단화된 훈련장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된 훈련장 보유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폐기되거나 방치된 훈련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절차 통해 정리하여야 한다. 셋째 군과 주민이 대화할 수 있는 진담협의체와 진담부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사격장 등 민원소지가 있는 훈련장은 지하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조례규정 반영으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방부와 경기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ABSTRACT

The study is about the national defense 2020 plan. According to the reduction of military bases, It should be needed to be integrated as a high-tech camp. So we researched and did a fact-finding survey mainly in Gyeonggi Province. After the research, first, It should be reset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and the retention criteria of harmonized camp. Second, the neglected and scrapped camps should be put into order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by handling procedure. Third, it should have dedicated consultative bodies, exclusive departments and professional staff to communicate with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citizens.

Fourth, if there are any causes of civil appeals such as shooting ranges should be in the underground. Lastly, To get support smoothly, it should be reflected by enacted special laws and ordinance regulations. This material could be used wh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 discussion with Gyeonggi Province.

## 키워드

2020 Defense Planning, Training Camp Management Plans, Secure Training Center Based on Complaints  
국방 2020계획, 훈련장 관리방안, 훈련장 확보기준, 민원

\*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skdsdc@hanmail.net)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kimhaengjo@kornu.ac.kr)

접수일자 : 2013. 06. 10

심사(수정)일자 : 2013. 07. 23

게재확정일자 : 2013. 08. 23

## 1. 서론

세계적으로 정보화의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언제 어떤 일이 벌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군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 · [2] 즉 국방부는 2020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육군·해군·공군을 국방전력에 맞도록 축소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육군이다. 육군은 야전군 1개와 1개의 군단, 20개의 사단을 줄이고자 한다. [3]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병위주로 전력을 운영하였으나 무기체계의 변화와 전술의 변화로 기계화위주의 부대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병력을 줄이면서 장비로서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하에서 육군은 부대 수가 축소되는 것과 아울러 그동안 훈련을 할 때 소음과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훈련장의 실태를 면밀하게 진단하여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 같다. [5]

그런데 육군 전체를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육군의 전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부전선인 경기도 일대의 부대수 축소에 따라 그 동안 지역에 산재되어 있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훈련장을 통합하거나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1] · [8]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2020 국방개혁에 부합되고 육군의 전력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경기도의 장기계획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상생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따른 훈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훈련장을 파악하기에는 현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어 육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지역의 훈련장 중에서 사격장 등 몇 개로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절차는 경기도 일대에 있는 육군이 점유하고 있는 훈련장의 현황을 군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제시한다. 다음은

수집된 훈련장을 중심으로 부대의 통·폐합과 병행한 훈련장 사용방안을 검토한 군 발표 자료를 검토하여 미래의 효율적인 훈련장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개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본론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동북아시아의 주변국 위협을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은 자체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찰 위성, 위성 요격의 능력을 구비하고 한국군의 전략 네트워크를 파괴할 능력이 있다. 또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전 수행이 가능하며 합동타격 수단 및 원거리 정밀타격 수단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무한정한 인적자원으로 대규모 지상군이 지속 운용가능하고, 항공모함, 상륙함정 등 전력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 어느 지역이든 전선형성이 가능하고 우세한 해·공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3]

러시아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은 제한되나 태평양함대 및 강력한 전술 공군능력을 집중할 수 있으며, 자체 위치정보시스템, 위성 요격 능력, 우수한 정찰 감시능력으로 정보전과 정밀 타격전 및 우주 및 공군 우세가 달성 가능하며, 네트워크 전 수행이 가능하여 합동타격 수단 및 원거리 정밀타격 수단을 집중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3]

일본은 우세한 해·공군의 집중 운용으로 해상 및 공중 우세 달성이 가능하며, 고도의 정보전과 정밀 타격전 수행이 가능하고, 단기간 군사력 증강능력 보유로 장기전에는 불리할 것으로 본다. [3]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따른 내부 문제를 대남 도발로 표출할 우려가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의 이행 거부와 핵무기 지속 보유를 위한 계획된 제한적 도발과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 강요를 위한 위기 조성 및 제한적 도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통일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의 무력개입에 따른 전면적 도발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능력 및 도발형태는 극한상황에

핵무기 사용, 미사일 및 화생무기 사용, 재래식 군사력 운용과 테러나 사이버 공격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3] 이러한 때에 우리군은 군부대를 축소하고 장비를 통한 전력을 상승시킬 국방2020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군의 주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의 군부대와 훈련장의 중요성은 더 한층 중요하므로 그 운용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방 2020계획에 따른 육군부대 감축계획은 <표 1>과 같다.

표 1. 육군 부대 감축계획  
Table 1. Army troops reduction plan

Type	Field Armies	Corps	Division
present tense	3	10	40
Future Plans	2	6	20
Decrease	-1	-4	-20

육군은 2020계획에 의거 보병위주의 전력운영에서 첨예화된 장비발달로 기계화위주로 변경될 것에 대비하여 야전군은 1개, 군단은 4개, 사단은 20여개 축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작전지역의 중심이 확대되게 되는데 군단은 정면×중심이 30km×70km이던 것이 100km×150km로 7배로 증가하고, 사단은 정면×중심이 15km×30km에서 30km×60km로 4.5배 증가하여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담당지역이 넓은 것은 발달된 장비와 무기체계가 충분하게 지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현재 경기도에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제1청사와 제2청사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경기도 내 군유지 현황(단위 : km<sup>2</sup>)  
Table 2. Land held in Gyeonggi province military status

Category	Total area	Occupy Army	Occupancy rate(%)
Total	10,182	371	3.35
Building No. 2	4,284	260	6.07
The first buildings	5,893	81	1.37

경기도에서 육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면적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2청사가 있는 접적지역은 6.07%로 제1청사의 1.37%보다는 4.4배가 넓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제2청사 지역의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훈련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더 시급한 실정이다. [9] 또한 경기도 주요 시·군별 군부대 주둔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시·군별 군부대 주둔현황(단위 : 만m<sup>2</sup>)  
Table 3. Group for troops and military status at the time

Category	Paju	Yeoncheon	Yangju	Goyang
Military	4 divisions corps Direct control	4 divisions corps Direct control	3 divisions corps Direct control	3 divisions corps Direct control
Area	1,905	1,214	493.8	676.2

군부대가 시·군별 주둔현황을 보면 과주시가 4개 사단과 군단직할 부대로 가장 넓은 지역(1,905)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천군은 4개 사단과 군단직할부대(1,214)이며 이어서 고양시와 양주시가 넓은 군부대와 훈련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군부대가 집중되어 있는 시·군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군과 지역주민이 불만과 상생이 어려운 곳이다. 다음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별 훈련장 현황이다.

표 4. 부대별 훈련장 보유 현황(단위 : 개)  
Table 4. Status of training camp held by Bag

Total	1corps	6corps	5corps
19,052	4,986	11,577	2,489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대별 훈련장을 보면 6군단이 11,577개(61%)이고, 1군단이 4,986개(26%) 그리고 5군단이 2,489개(13%)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6군단이 위치한 의정부와 송우리 일대는 경기도에서 가장 개발이 많은 지역으로 잦은 군부대와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곳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

고 훈련장의 사용실태와 중복 훈련장 현황도 아울러 확인하였다. 다음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별 민원처리 현황이다.

표 5. 군단별 민원처리 현황(단위 : 건)  
Table 5. Status of complaints by legion

Category	Total	Consent	Conditional consent	No Consent
계	18,958	10,476	3,476	5,006
1corps	13,861	7,849	2,137	3,875
6corps	3,695	1,884	856	955
5corps	1,402	743	483	176

경기도 지역 관할부대의 3년간(2005년-2007년) 민원처리현황이다. 총 18,958건 중 동의 10,476(55.3%)이며, 조건부 동의 3,476(18.3%)로 조건부 동의 이상이 73.6%(13,952)이다. 반면 26.4%(5,006)는 부동의이거나 취하 등 거부되어 재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의 되고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의 비율은 2005년 23.6%, 2006년 21.8%, 2007년 19.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둘째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을 비교해 보면 공공사업의 부동의는 12.4%, 민간사업의 부동의는 22.3%로 공공사업의 부동의 비중이 훨씬 적다. 이는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관할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할 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제2청사와 제1청사지역의 부동의 비중을 보면 제2청사 지역의 민원 건수는 98%이고 제1청사 지역의 민원 건수는 2%미만인데 제1청사 지역의 부동의는 34.6%, 제2청사지역의 부동의는 19.6%로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는 군부대 기지, 비행장, 훈련장 등 군사시설이전 요구 등 상당부분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관할부대별로 보면 부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대가 41.7%, 가장 낮은 부대는 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민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계획사단의 양평군 원평지역 사격장이 포병 및 전차사격 훈련장 민원으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역 주민들이 전차의 진입을 막고 교외이전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다. 둘째 포천시 지역민들은 영평사격장과 승진사격장의 소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4]

### III. 훈련장 관리실태

경기도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훈련장을 가능한 한 곳으로 통합하여 경제적 운용과 운용유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소부대의 기능 전술훈련장과, 개인·공용화기 사격장은 사단이나 여단으로 권역화하고 대부대 훈련장인 제병협동훈련 및 합동훈련장, 과학화 훈련장, 공·지·훈련장 등은 군단 이상 제대별로 권역별별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의 훈련장 소요기준을 검토하여 통합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먼저 소요기준을 보면 육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훈련장 확보기준이 타당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육군의 표준훈련장에서 제대별 훈련장 확보기준에 따른 기준 재설정에 관한 사항이다.

육군의 훈련장 확보기준을 보면 실제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가용토지에 비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적다는 의미이다. 경기도 지역 육군보유 훈련장 총면적은 16,518km<sup>2</sup>인데 육군확보기준에 따른 경기도지역 훈련장 총 소요면적은 18,694km<sup>2</sup>로 2,176km<sup>2</sup>가 부족한 실정이다. 통합하여 훈련장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육군의 훈련장 소요기준을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둘째 병사에 대한 기본훈련이나 주특기별 훈련을 주둔지에서 통합하여 실시하고 영점사격장을 포함한 사격장은 지하화 하여 민원발생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훈련장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대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주민과 마찰이 적은 지역으로 훈련장을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표 6. 제대별 훈련장 확보기준  
Table 6. Hourly secure training center based on article

Category	Designation	Secure basis
1.3 Army corps	Corps FTX-class training center	1
	Notice the joint training camp	2
	Ground anti-aircraft firing range	2
corps	Co-battalion regiment wafer	1
Division · Brigade	Division, Brigade General Training Center	1
	Training ground clearance	1-2
	Functional Training Center Soldier adept	1
	Comprehensive training camp recruits	1
	Automated-personal firearms Range	사단 3-5개
Regiment · Battalion	Zero-range personal firearms	1
	Basic Course Training Center Soldier	1

셋째 기존 훈련장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어 방치된 훈련장이 의외로 지역에 많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폐기된 훈련장에 대해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수용하였으며 수용 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넷째 군 훈련으로 인하여 가족과 사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의 대화나 상담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는 없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은 개인 재산권에 대해 해당법률

을 알고 행정관서에 문의 하는 등 상당부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만 군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부재인데 지휘관들은 본인들의 임기 중에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사고와 실무자들은 나의 일이 아니니까 하는 자세가 문제로 볼 수 있다. [6]

여섯째 대부분은 군부대 훈련장들이 지역발전계획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안보보다는 지역발전에 우선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군부대와 협조하는 자세에서 이제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군을 비판하는 분위기로 각종 개발에 저해될 때에는 군부대와와의 관계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세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 군부대 지휘관들도 전향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계속 고집하기 보다는 지역발전에 동참하면서 군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IV. 효율적인 훈련장 관리방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지역에 배치된 부대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훈련장 보유기준을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사격장은 대부분 지하화하고 전술훈련장은 권역별로 통합하여야 한다.

첫째 육군의 훈련장 소요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분산보다는 정보화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2020계획에 의거 부대의 축소에 따라 현대화된 부대시설과 병행하여 훈련장도 첨단화하여야 한다. 즉 각종 장비와 측정, 실험 등을 주둔지와 필수 훈련장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경기도의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여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외곽에 있던 군사시설과 훈련장이 지역발전으로 인하여 도심에 인근하여 있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다. 따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의 과학화되고 첨단화된 훈련장을 도입하여 통일을 대비한 통합된 훈련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 중에서 가장 민원요소가 많은 것이 사격장이다. 그렇다고 전시를 대비한 사격훈련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제 도심인근이나 외곽에서도 각종 개발로 전원주택과 귀농·귀촌으로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따라서 사격훈련이 있는 날이면 지휘관들도 긴장하고 지역주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지하화 사격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하화된 사격장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사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인명피해도 우려되므로 향후 미래를 대비한 첨단화된 지하사격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셋째 경기일원에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훈련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군에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즉 군에서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무관심 내지 나중에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점유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폐기된 훈련장을 생산적으로 처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군과 지역민들의 관계가 훨씬 원만하고 좋아질 것으로 본다.

넷째 사격이나 전술종합 훈련과 헬기 등 장비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가족의 피해가 가끔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여 해결할 인원이나 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여 민원을 해소시킬 전문적인 인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군부대의 주둔은 지속될 것인데, 전담부서와 전담인원을 정하여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연구하게 하고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위해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여 관련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교나 지역주민센터에서 부동산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관계분야의 일부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담인원이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휘관들이 부동산분야에 대한 지식과 사고가 미흡하여 지역주민들과 작전성문제로 토의를 할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관계분야와 지휘관들에 대한 교육을 군 양성학교나 보수과정에 반영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여섯째 훈련장들이 과거에는 도심에서 떨어져 지역

발전과는 무관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확장으로 상당 부분이 훈련장과 인접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훈련장을 이전하거나 소음 등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유대관계가 있어야 상황 발생이 될 때 적절하게 대응하여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단체장들과의 마찰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와 육군의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책임자들도 본인이나 국방부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을 이제는 지양하고 부대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의 실리를 취하고 지역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V. 결 론

국방 2020계획으로 우리군의 첨단화된 정예군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부대수의 축소에 따른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장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육·해·공군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육군인데, 육군전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군지역인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의 현황을 알아보고 실태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의 2020계획에 따라 육군·해군·공군의 규모와 부대수가 축소됨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훈련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훈련장 통합 방안과 훈련장 보유기준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하고 첨단화된 소요기준을 적용한 훈련장을 보유하여야 하고 또한 경기도의 지역개발계획과의 조화되는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그 동안 관리하지 않아서 방치되거나 훈련장으로서는 용도가 폐기된 곳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군 입장에서도 경기도 제2청사에 있는 군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듯이 군에서도 대외부서를 담당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편제에 반영하고 전문가를 배치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민군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훈련장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사격장 등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분야는 과학화되고 첨단화된 훈련장이 지하에 위치함으로써 민원소지를 과감하게 줄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군은 2020계획에 따라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도심지와 인근에 있는 훈련장을 통합함으로써 남은 훈련장을 처분하여 이전비용에 충당하여 첨단화되고 과학화된 통합훈련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훈련장을 관리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에 관한 법률과 특별회계법 등 기존법률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반영하거나 제정하여 위배되는 내용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와 국방부가 상호 토의나 논의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때에도 정치권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 문헌

- [1] Han gu-Kang · Sang han-Tak · Oh bong-Kwan, "Secure military facilities and military support Study Areas", KIDA, pp. 15-238, 3, 2003.
- [2] Yeong bong-Kim, "Protected areas and the installation of military life, environmental impact and measures Sedentary lif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p. 104-117, 1. 2006.
- [3] Yeong je-Sun · Yun sek-Kim · Wan sik-Yang · San gil-Ban · Beang hak-Park · Yea in-Yun, "Military training ground facilities and integrated fire and Study",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pp. 1-165, 6. 2009.
- [4] Yeong je-Sun · Yun sek-Kim · Meang gu-Lee · Wan sik-Yang, "Analysis of military-related

civil and military consultation system improvements",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pp. 3-184, 4. 2008.

- [5] Kwang shig-Shin,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local government's property management on ways to mutual research",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Communication Sciences, Vol. 6, No. 4, pp. 573-580, 2011.
- [6] Kwang shig-Shin · Dong hyun-Kim,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in the real estate assets hel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Communication Science, Vol. 7, No. 1, pp. 181-186, 2012.
- [7] Kwang shig-Shin · Haeng jo-Kim,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the previous business component research on the impact on residents satisfaction", 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Communication Science, Vol. 8, No. 1, pp. 143-148, 2013.
- [8] Gwan chi-Oh · Young gu-Cha · Gwang su-Han · Hyun cheaun-Yea · Mi young-Kim, "Rational economic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in northern military plans", pp. 1-158, 10. 2009.
- [9] Geum hui-Hwang · Gi dong-Shin · Se jin-Jang, "Effects of law to the border region", Gyeonggi Research and Improvement Plan, pp. 3-101, 8. 2007.

## 저자 소개



### 신광식(Kwang-Shig Shin)

1985년 2월 사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1990년 8월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이론행정 졸업(행정학 석사)

2010년 8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박사)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입지, 부동산중개, 부동산보상



**김행조(Haeng-Jo Kim)**

2001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  
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석사)

2005년 일본, 메이카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연구과 졸업(부동산학박사)

2007년~현재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08년~현재 공인중개사시험 정답심의위원

※ 관심분야 : 부동산정보, 부동산개발 컨설팅